LG전자, 5년간 1兆 투입… 미디어·엔터테인먼트社 발돋움

webOS 파트너 서밋 2023

혁신·개방적 SW 플랫폼사 선언
타 TV 브랜드·제품군에 공급해
2026년까지 플랫폼 생태계 확대

19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webOS 파트너 서밋(Partner Summit) 2023에 참석한 webOS 개발자 및 콘텐츠 사업자 등 파트너사 관계자들이 세계 최초 무선 올레드 TV로 webOS 콘텐츠를 체험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가 전자기업에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LG전자는 19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webOS 파트너 서밋(Partner Summit) 2023'을 개최했다. 세계 30개국 파트너들이 모인 가운데 LG전자는 하드웨어 제조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써 본격 선언했다.

박형세 LG전자 HE사업본부장은 "LG전자는 단순한 하드웨어 제조업체가 아닌 다양한 세대에 차별화된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소프트웨어를 갖춘 플랫폼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레드 TV 10년의 리더십과 스마트 TV 플랫폼 webOS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LG전자는 앞서 지난 7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향후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정과 운송수단, 가상공간 등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솔루션을 통해 2022년 65조원(LG이노텍 제외)의 연간 매출을 2030년 100조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webOS는 지난 2014년 LG전자가 내놓은 전 세계 2억 대 LG 스마트 TV를 구동하는 운영 체제다. LG전자는 LG 스마트 TV 외에도 타 TV 브랜드와 다른 제품군에도 webOS를 공급해 2026년까지 webOS 사업 모수를 3억대로 늘리는 등, 플랫폼 생태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프로젝터, 모니터, 사이니지, 차량 등 타제품군까지 webO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webOS를 선택한 타 브랜드는 300개사 이상이다.

이날 조 사장은 webOS의 플랫폼 업그레이드 계획도 공개했다. 현재 webOS는 다양한 외부 변화에 대응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나 OS 전체를 획기적으로 변모하고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 업그레이드는 아직 서비스하지 않고 있다. LG전자는 플랫폼 업그레이드를 제공함으로써 파트너사들의 안정적인 개발 및 소프트웨어·콘텐츠 공급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구형 제품도 새로운 기능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LG전자는 플랫폼의 핵심인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맞춤형 콘텐츠/서비스 분야에 5년간 1조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 중 하나는 'AI 기반 검색 및 추천 기능' 강화다. webOS를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콘텐츠 메터데이터를 활용해 시청자가 원하는 내용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음성 인식 기능을 강화한다.

서비스 사용 편의성도 높인다. 9월 말 출시를 앞둔 새로운 LG채널 3.0은 새로운 레이아웃으로 업데이트하고, 전용 채널 가이드를 제공해 콘텐츠 탐색 편의성을 높였다. 현재 LG채널은 전세계 27개국에 3000개 이상의 채널을 제공하고, 사용자 수는 5000만명 이상이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 중 유니크 디바이스(UD, Unique Device)는 75%, 시청 시간은 57% 증가했으며, webOS 내 사용 빈도는 Top5까지 상승했다. 9월 말에는 인도에도 LG채널을 출시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주차경로 학습·원터치 원격 주차 선배

성능 개선 버전 MPS 1.0P 개발
초음파센서·SVM 카메라 융합
주차선 인식해 빈 공간서도 지원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차세대 주차제어시스템 시연 장면. 운전자 핸들 조작없이 학습된 경로를 따라 자동 주차하는 '메모리 주차 지원', 주차선 인식 기능을 추가해 진일보한 자동 주차를 구현한 '원격 자동주차시스템 2' 등 다양한 주차제어 기능을 지원한다.

현대모비스가 첨단 기술을 적용해 차량이 운전자의 주차 습관을 분석해 스스로 자동 주차를 수행하는 기술을 공개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주차제어시스템(MPS·Mobis Parking System)의 성능 개선 버전인 'MPS 1.0P(프리미엄)' 개발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술의 대표적인 기능은 '메모리 주차 지원(MPA:Memory Parking Assist)'이다. 운전자가 경로학습 모드로 주차를 실행하면 차량이 이를 스스로 학습해, 다음부터는 해당 주차공간에서 운전자가 원터치 조작만으로 자율주차가 가능하다.

차세대 주차제어시스템의 핵심은 영상기반의 센서 퓨전에 있다. 초음파센서와 SVM(Surround View Monitor) 카메라를 융합했다. 이를 통해 얻은 정보로 차량의 위치측정과 지도생성을 동시에 하는 첨단 기술도 적용했다. 로봇공학에서 유래한 이러한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여, 100m에 이르는 저장거리를 지원하는 주행보조 기능을 구현했다.

이 기술은 지정주차구역이나 개인차고지 등이 상대적으로 일반화돼 있는 유럽이나 중국 등에서 특히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리 학습된 주행경로로 동일한 장소에 원격 주차가 가능해져 주차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는 고가의 레이더, 라이더 센서 없이 초음파와 SVM 카메라만으로 차세대 주차제어시스템을 구현했다. 기술적 완성도는 물론 비용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다. 이에 글로벌 수주는 물론 일반 차량에 대한 빠른 대중화도 기대된다.

MPS의 또 다른 핵심 기술인 '원격 자동주차시스템(RSPA)'도 업그레이드됐다. 이미 여러 양산차에 적용된 기존의 RSPA는 초음파 센서로 주차공간을 인식해,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버튼 하나로 직각 및 평행주차 등을 지원한다. 다만 초음파가 인지할 대상이 필요해 주차공간 주변에 다른 차량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대모비스는 영상기반 센서 퓨전을 통해, RSPA 2 버전에 주차선 인식 기능을 추가했다. 주변에 차량이 없는 빈 주차공간에서도 주차선을 인식해 자율주차를 지원한다. 현대모비스의 이 기술은 최근 기아가 출시한 전기차량인 SUV EV9을 비롯해 G90, GV60, 아이오닉 6 등에 적용돼 대중에 선뵈기도 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앞으로 완전무인 자율주차(AVP·Auto Valet Parking) 수준까지 연구개발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크랩주행, 제로턴 시연으로 주목받은 'e-코너 시스템' 등 도심형 자율주행 신기술을 잇따라 선보이며,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도를 위한 청사진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포스코인터

임직원 대상 신사업 공모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약 1800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임직원들의 아이디어 속에서 회사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연말까지 신사업 공모 접수와 평가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출된 임직원 아이디어들은 ▲1차 서류평가 ▲2차 프레젠테이션 평가 ▲1년간의 사업 인큐베이팅 ▲최종 평가를 거쳐 회사의 미래 사업으로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사내사업화나 분사창업 형태로 추진된다.

아이디어가 사내사업화로 추진될 경우 독립적인 조직 구성을 통해 사내독립기업(CIC)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사업적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래 핵심사업으로 성장 가능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해 낸다는 목표다. /양성운 기자

GS칼텍스, 국내 최초 생분해 기계톱유 출시

Kixx Chain BIO, 구성 물질 98%
유자·야자·대두 등서 추출한 지방산

GS칼텍스의 윤활유 브랜드인 'Kixx'가 기업의 환경적 책임과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가치 실현을 위해 바이오 기반 윤활유 제품군을 확대한다.

GS칼텍스는 19일 국내 윤활유 브랜드 최초로 구성 물질의 98%가 바이오 기반 물질로 이루어진 고성능 생분해성 기계톱유 'Kixx Chain BIO'를 출시했다.

'Kixx Chain BIO'는 유채, 야자, 대두, 사탕수수 등에서 추출한 지방산을 이용해 만들어진 생분해성 윤활유로 토양에서 분해되지 않는 일반 석유계 윤활유 제품과는 달리 일정 시간이 지나면 땅속 미생물, 햇빛 등에 의해 대부분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특성이 있다.

GS칼텍스 Kixx Chain BIO. /GS칼텍스

기계톱유는 연간 약 6000드럼이 사용되는 소형 시장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기계톱 전용으로 만들어진 윤활유 제품이 없어, 유사한 제품 성격을 가진 석유계 엔진오일 제품이나 고가의 해외 기계톱유 제품을 사용해 왔다. 이에 국내에서도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분해성 윤활유 제품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됐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애경케미칼, 준불연 소재 개발 주력

FM 4910 인증 획득하며 기술력 입증

애경케미칼이 화재 안전성을 높인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애경케미칼은 각종 화재로 인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강화된 건축법과 관련법령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소재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애경케미칼은 3년 여 간 고객사와 협력해 준불연 소재를 적용한 우레탄 패널을 개발하고, 지난 7월 최종적으로 준불연 시험 기준(복합자재품질인정 시험·KS F 8414)을 통과하며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 받았다. 애경케미칼은 복합자재 품질인정을 취득하기 위한 품질시험 4종을 모두 통과했다.

또한 2021년 11월 초고성능 난연·내식 복합소재용 수지(POLYCOAT DION-9341F) 개발에 착수해 올해 2월 제품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애경케미칼 측은 이후 7월 화재 안전성 인증부문에서 세계 최고 신뢰도를 자랑하는 FM(Factory Mutual) 4910 인증을 획득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애경케미칼은 난연·내식 복합소재용 수지 관련 난연 인증(ASTM E-84 CLASS A 등급)도 획득한다는 계획이다.

애경케미칼 관계자는 "최근 물류센터와 반도체 공장 건설이 늘어남과 동시에 건축 플랜트 자재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화재 안전성을 높인 기능성 소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의 화재안전기준 강화 추세를 사업 확장과 수익성 향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